

어린이집탐방

간성어린이집

“맑은 마음으로 밝게 웃는 어린이”

가정과 연계활동 통해 보육과정 충실 ... 보육시설 벤치마킹으로 어린이집 개방

간성을 신안리에 위치한 국공립 간성 어린이집(원장 이원자)은 1979년 하2리 여성회관에서 40명의 원생으로 시작했으며, 그후 1986년 간성읍 신안리 258-6으로 신축해 정원 86명으로 운영해왔다.



이원자 원장

그러던 중 태풍 루사로 인해 2009년 1월 대지 1,943㎡ 연면적514.44㎡의 2층 건물에 장애아통합시설을 갖춘 110명 정원으로 신축됐다. 개원 이후 현재까지 1,64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간성어린이집은 2007년 5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 되었던 평가인증을 이전과 함께 재인증받아 2009년 10월 재차 통과되어 강원도내 시설개방을 했다. 현재 99명의 원생과 교직원 11명이 ‘맑은 마음으로 밝게 웃는 어린이’라는 원훈 아래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간성어린이집은 전인적인 발달을 위한 표준보육과정, 안전한 환경, 위생,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자연친화 생태유아 교육프로그램, 지역사회 및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감 등에 힘쓰고 있다. 특히 2010년 강원어린이집연합회 및 강원유아교육

학회의 연구개발에 의한 강원특화사업으로 진행되었던 ‘그린평화보육과정’ 시범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 지역의 주요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동우대학유아교육과, 고성군보건의소, 고성경찰서, 초도어촌체험마을 등)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견학 및 체험활동 등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고성군의 해양심층수를 알리는 TV 광고에 간성어린이집의 원아들이 추천되어 촬영에 협조하였으며, YBS 채널을 통해 광고가 나오는 등 많은 연계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간성어린이집은 원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월 2회 이상 안전교육과 1회 이상의 대피훈련을 실시해 안전에 대한 습관과 대처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보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1월에는 원아들의 안전을 위해 카운티 어린이전용버스 34인승을 구입해 현장학습 및 체험활동 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 안전과 위생을 위해 실내공기질 측정도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에서 정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결과를 보였다.

그리고 간성어린이집의 특성화프로그램은 외부강사들과 교사의 협력으로 더욱 더 깊이 있게 진행되어진다. 영어(레터랜드,

피크닉, 노부영), 가베, 체육, 레고 등이 이루어지며 특히 가베와 레고는 전교사가 자격을 지니고 있어 수업 시간 외에도 영역별 활동을 통해 활용도가 높으며, 특별활동 중 학부모와 함께하는 영어체험학습을 통하여 마켓, 퀴즈, 게임, 요리, 포토존, 바블쇼 등 코너별 활동으로 즐거운 체험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간성어린이집은 2009년 강원도 농어촌 우수 어린이집으로 추천되어 2010년 11월 8일에는 서울보육정보센터와 자매결연을 맺은 우즈베키스탄 사립유치원협회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수업참관 및 보육프로그램 연찬, 실내외 시설 환경 등을 견학하였다. 간성어린이집 원장은 그 공을 인정받아 2009년 11월 대통령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강원도 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의 회장을 맡아 지속적인 보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보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



간성어린이집이 실시한 학부모 참여수업 모습.

사의 재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으며 가정과의 연계도 잘 이루어져 2011년 가정 실천연계공모전(그린평화보육과정, TV 안보기실천운동)에 활동 포트폴리오를 출품하여 수상의 기쁨도 함께 나누었다.

이원자 원장은 “영유아들의 다양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로 건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질 높은 보육서비스에 힘쓰겠다”며 “보육 교직원들이 보람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여 보육에 전념하는 어린이집, 원아들과 학부모들이 모두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승근 기자

‘꿈을 꾸는 학생, 행복주는 부모’

동광산업과학고 학부모 대상 특성화고 직업교육정책 설명회

동광산업과학고는 지난 16일 오후 5시 30분부터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더클래스300호텔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취업 역량강화(선취업·후진학)를 위한 학부모 특성화고 직업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동광산업고는 이날 설명회에서는 정부의 직업교육정책과 맞물려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 ‘선취업, 후진학’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현재 서울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조용 교장이 초청강사로 나와 ‘꿈을 꾸는 학생, 행복주는 부모’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선도 명품학교 특성화고 추진현황



동광산업과학고가 지난 16일 속초시 조양동에 위치한 더클래스300호텔에서 개최한 ‘취업 역량강화(선취업·후진학)를 위한 학부모 특성화고 직업교육정책 설명회’가 호응을 얻었다.

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특성화고 직업교육정책 설명회는 학부모들이 퇴근 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은 탓에 75명이나 참석했으며, 특히 6시부터 7시30분까지 강연을 들은 후 뷔페로 저녁식사를 하며 담임교사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동광산업고 인창열 교사는 “강의 후 학부모님들께서 이번 강연에 대해 만족스러워하며, 이런 자리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일단 자체 평가는 만족스러웠으며, 진학과 취업에 있어서 학부모님들과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제11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종합탁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성군 라지볼탁구동우회 회원들.

60대 남자 단체전 우승

고성라지볼탁구동우회, 도지사기 종합탁구대회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영월에서 개최된 제11회 강원도지사기 국민생활체육 종합탁구대회에서 고성라지볼탁구동우회(회장 남기훈)가 60대 남자부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고성군 라지볼탁구동우회는 이번 대회에 60대 이상부에 17명의 회원이 참가해 남자부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으며, 70대 여자부 단체전 2위와 60대 여자부 3위라는 쾌거를 이뤘다.

개인단식에서는 박근성 어르신(67)이 2위를 차지했으며 개인복식에서는 박근성·김복환 어르신(67)이 3위를 차지했다.

고성군노인복지회관 관계자는 “종합탁구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고성군 라지볼탁구동우회는 장미진 강사의 열정적인 지도 아래 2년의 짧은 기간의 훈련 속에서 회원 모두가 일궈낸 노력과 땀의 결과”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